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약사사 시크릿 스토리		
활동목표	약사사의 숨겨진 역사를 알고 국립공원 문화자원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본다.		
해설주제	무등산과 증심사		
해설재료	갤럭시노트, 구급약품백	소요시간(')	60'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1. 만남 및 소개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15'	-
주제 해설	2.일주문	-일주문 이란?	5'	-
	3.약사사	-약사사 소개	20'	
	4.참나무 이야기	-참나무에 관한 이야기	10'	
정리	5. 마무리	-느낌 말하기 -정리 및 마무리 인사	10'	-

신청인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p>1. 만남 및 소개</p>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시나리오</p> <p>여러분 안녕하세요. (탐방객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며.) 여러분이 오신 이곳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약사사’ 사찰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오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시원한 계곡길 따라 오시는 길이 모든 일을 잊을만큼 참 좋죠?? 오늘은 모든 일을 잊고 공기가 맑고 시원한 여기 약사사에서 무등산의 소중한 자연을 이해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은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럼 먼저 국립공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곳 무등산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참여유도)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 보고, 문화유산의 보고, 빼어난 자연경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 공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을 자원,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방금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왜 중요한 곳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등산은 2013년 3월 4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을 잘 들은 친구라면 금방 알 수 있을겁니다.</p>

네. 우리나라에는 21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4개의 해안·해상형 국립공원, 1개의 사적형 국립공원 경주가 있습니다.

여기 무등산은 화산 분출로 생겨난 산인데요, 산의 대부분이 용암이 급속히 식어 만들어진 석영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부에는 천연기념물 465호 지정된 주상절리대인 서석대와 입석대가 있습니다.

무등산은 광주·전남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산이라고 생각할만큼 아주 애착이 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산의 모양도 어머니의 마음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답니다.

자 이제까지 이곳을 포함한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곳에 사는 여러 동·식물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소중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합니다. “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해설을 듣고 체험하며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해설사인 제가 해설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해설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OX퀴즈로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물론 정답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에게는 특별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선물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일주문	<p>산사의 첫 문! 이 문의 쓰임새가 무엇일까요? (질문 - 일주문이 무엇인지 물어봄 사찰해설의 단골 설명, 아는 사람이 많으면 간단히 소개 후 통과) 네. 그렇습니다. 사찰의 입구에 세워져 속세와 불계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사찰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적인 번민과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는 의식적인 상징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주문은 기둥을 일직선상에 세웠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네 개 이상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일반가옥의 형태와는 달리 일직선상의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독특한 형식이며, 기둥 넷을 일직선상에 세운 특수형도 있는데 동래 범어사(부산 금성산)의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이렇게 독특하게 세운 것은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를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저기 일주문에 걸려있는 현판에 쓰여 있는 글씨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잠시 시간을 주며...) 그럼 읽어 볼까요. 앞면에는 무.등.산. 약.사.사.라고 쓰여 있습니다.</p>
3. 약사사	<p>(일주문 앞) 이곳 약사사는 중심사에서 계곡을 따라 약600m 상부 분지의 새인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사사는 무등산에서 유일하게 6.25의 전화를 입지 않은 사찰입니다. 약사사는 원래 '인왕사(人王寺)'라 하였고, 철감선사가 중심사 창건을 위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고려 예종(1105~1122년)때 혜조국사가 중창하면서 이름을 약사암으로 바꿨고, 조선 철종 7년 3월에는 성암스님이 약사전을 중수, 1905년 9월 선주스님이 관찰사 주석면의 도움과 시주로 중건하였습니다. 약사사는 1970년 초까지 법당과 요사채가 서로 연결된 'ㄱ'자형 절집이었으나, 1979년 대웅전과 요사채인 운림선원 및 운림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주요 유물 사진을 보여주며) 현재 약사사에 보존된 중요 유물로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600호)과 삼층</p>

석탑이 남아있는데, 이 유물들은 약사사의 창건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모두 9세기 전반기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후에 만나 볼 석조여래좌상은 원래 지방유형문화재 제16호 지정되었으나, 1973년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9세기 초) 때 조성된 것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1976년 8월에 보물 제6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웅전 앞의 삼층 석탑은 기단 갑석과 1층 탑신, 1~3층의 옥개석, 상륜부의 노반만 남아 있던 것을 1985년 부족한 부재를 보충하여 복원하였습니다.

탑은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말의 전형양식을 따르고 있어 조성연대를 9~10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참나무 이야기	<p>여기 한적한 산사에는 어떤 식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참나무라 하면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참’은 진짜란 뜻이죠. 참나무는 진짜나무라는 말입니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들인데 통틀어 참나무라고 부르며, 제각기 다른 모양의 도토리를 만듭니다. 이중에 갈참, 졸참, 신갈, 떡갈나무는 꽃이 핀 해에 열매가 열리지만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는 다음해에 열매를 맺습니다.</p> <p>■ 낙엽성 참나무류 이름의 유래</p> <p>▷ 신갈나무 이 나무의 잎은 옛날 나무꾼들에게 유용하게 쓰였는데, 숲 한가운데서 짙은 바닥이 헤지면 이 나무의 잎을 깔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갈나무, 즉 '신을 간다.' 라는 뜻을 지닌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p> <p>▷ 떡갈나무 떡을 쌀만큼 넓은 잎을 가진 참나무라고 하여 떡갈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떡갈나무 잎으로 떡을 싸 놓으면 떡이 오래 가서 예로부터 떡갈나무 잎으로 떡을 싸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떡갈나무 잎에는 방부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현대과학으로도 입증되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p> <p>▷ 상수리나무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피난을 갔을 때 이 나무 열매로 목을 쭈어서 올렸는데 대궐에 돌아와서도 이 음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상에 올랐다고 하여 상수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p> <p>▷ 굴참나무 코르크층이 잘 발달된 수피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를 누르면 푹신푹신합니다. 병뚜껑 등 코르크 제품을 만들 때 이용되며 이 나무껍질로 만든 지붕을 굴피 지붕이라고 합니다.</p> <p>▷ 갈참나무 갈참나무는 잎이 가을 늦게까지 달려있고 단풍의 색깔도 황갈색이라서 눈에 잘 띄므로 '가을참나무'로 부르던 것이 갈참나무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p>

봅니다.

▷ 졸참나무

가장 작은 잎을 가진 "졸병 참나무"라 하여 졸참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 나무의 도토리로 만든 목의 맛은 다른 어떤 나무의 도토리로 만든 목보다 맛있답니다.

■ 도토리거위벌레 이야기

도토리거위벌레는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잘린 가지를 살펴보면 누군가 예리한 도구로 잘랐다는 점. 둘째, 가지 끝에는 튼실한 도토리가 달려있다는 점. 셋째, 그 도토리를 잘 살펴보면 작은 구멍 한 개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누가 이 많은 나뭇가지들을 잘랐을까요? 그리고 도토리에 난 작은 구멍들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일까요? 바로 범인은 도토리거위벌레입니다. 그 조그만 벌레가 참나무 열매에 알을 낳고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주둥이로 잘라 땅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럼 알을 낳으면 낳았지 왜 가지를 잘라 땅에 떨어뜨렸을까요? 도토리 속에 들어있는 알은 5-8일이 지나면 유충으로 부화해 도토리 과육을 먹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20여일 후에 탈출해서, 땅속으로 들어가 흙집을 짓고 겨울을 난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토리를 먹고 비대해진 유충이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나무 위에 높이 달려 있으면 날개도 없는 애벌레가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온전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도토리거위벌레는 알을 낳고는 가지를 잘라 땅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가을이 되면 다람쥐들은 무척 바빠집니다. 왜 일까요? 겨울이 되면 숲 속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이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토리를 만드는 나무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들인데 통틀어 참나무라고 부르며, 제각기 다른 모양의 도토리를 만들어요. 그 가운데 일부는 새나 다람쥐의 먹이가 되고 나머지는 어린 참나무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 도토리는 크기가 커서 다람쥐가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다람쥐들은 길쭉한 모양을 한 졸참나무 도토리를 가장 좋아하는답니다. 목 맛도 졸참나무 도토리로 쏜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 결론

다람쥐는 주운 도토리를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기는데요, 비밀 장소를 정하면, 낙엽을 헤치고 땅에 작은 구멍이를 파고 몇 개씩 분산해서 넣어둡니다. 한 장소에 모두 넣어 두었다가 도둑이라도 맞을 경우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토리를 구멍이에 잘 넣은 다음에는 이끼나 낙엽으

로 덮어 꼼꼼히 숨기고, 자신만이 아는 표시를 해둡니다. 떨어진 도토리는 낙엽이 그 위를 이불처럼 덮어 감추어 주고, 도토리는 다음 해 봄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긴 겨울이 지나 땅 온도가 5℃를 넘고 수분이 있는 환경이 되면, 도토리는 뿌리를 내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15cm 정도나 자란답니다. 그렇게 다람쥐가 숨기고 잊은 도토리에서 싹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야생동식물을 소재로 짠 정보 제공 및 수목관찰도구 등을 이용한 해설진행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마무리	
	<p>지금까지 저와 함께 국립공원의 소중함과 무등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약사사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p> <p>모두들 어땠나요?</p> <p>(대답유도)</p> <p>그럼 주변의 나뭇가지를 하나만 주어보세요.</p> <p>(발표시간-바닥에 동그란 원을 그린다.)</p> <p>그럼 오늘 느낀 점에 대해 한 명씩 원 안에 나뭇가지를 놓으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한명씩 발표)</p> <p>이렇게 각자 느낀 점에 대해 얘기 해봤으니 무등산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겠죠?</p> <p>오늘 느낀 점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돌아가길 바라고, 시간이 된다면 토끼 등의 숨겨진 이야기와 무등산의 대표 사찰인 증심사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p> <p>이제 모두 오늘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며 해설을 마치겠습니다.</p> <p>이상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 이었습니다.</p> <p>감사합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참고 자료	<p>○약사사 3층석탑</p>  <p>본래 무너진 때 방치되어있던 탑재들을 모으고 잃어버린 것을 보완하여 복원하였다. 기단부는 본래의 석재가 갑석밖에 없어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현재는 중석의 모서리에 귀기둥만을 새긴 단층기단이다. 갑석의 아랫면에는 부연(副椽)이 있고 윗면은 약간 경사졌으며 초층 탑신받침이 있다. 초층 탑신의 모서리에 귀기둥을 새겼으며 2층과 3층은 복원할 때 새로 만들었다. 상륜은 노반만이 본래의 재료이고 나머지는 동그란 보륜을 포개어 복원하였다. 갑석과 옥개석의 형태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p>
	<p>○약사사 석조여래좌상</p>  <p>대웅전 안에 봉안된 불상으로 <u>보물 제 600호</u>이다. 1856년의 약사전 중수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을 약사여래로 부르고 있다. 사각형의 지대석은 석탑의 하층기단과 같이 하대석, 중석, 갑석이 있다. 중석 모서리의 귀기둥과 면마다 2개씩의 기둥을 두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안상을 조각하였다.</p>

갑석의 윗면에는 1단의 팔각받침을 만들어 팔각의 하대석을 놓았다.
하대석은 연꽃무늬를 조각하였으며 윗부분에 모가 난 4단의 중석받침을 두었다.
중대석에는 모서리에 귀기둥만을 조각하였다. 상대석은 평면이 원형이고 연꽃잎 안에 또 다른 꽃무늬를 새긴 화려한 무늬로 장식하였다.
불상의 머리카락은 뒷머리만 나발로 표현하고 정상에 나지막한 육계가 있다. 얼굴을 약간 숙였으며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옷의 자락이 유려하게 흘러내려 무릎을 덮었다.
수인은 두 손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오른 손은 무릎 위에 놓아 항마촉지인을 하였고 왼 손은 결가부좌 한 발 위에 놓았다.
전체적으로 석굴암의 본존불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가는 허리와 경직된 어깨 등 어색한 점도 있어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